**< 고충처리인 활동 현황 (2021년) >**

헤럴드는 독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고충처리인은 메일 및 전화, 팩스, 우편 등을 통해 내용을 접수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명예,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곧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등 독자 의견 수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다음은 고충처리인의 2021년 활동 내용입니다.

2021년 콘텐츠와 관련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22건이었습니다.

대표적인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2021.1.7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이혜훈 "TBS는 '고통방송'?…폭설인데 온통 정치·예능방송"」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고충인인 TBS측이 이혜훈 의원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해 해당 부서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.

- 2021.1.15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AI ‘이루다’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절차 돌입」 제목의 기사와 관련, 집단소송의 주체가 잘못 명시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와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
- 2021.3.10 본사 홈페이지 및 본지 산업면에 게재된 「“내맘대로 인테리어”...게임하듯 3D 홈디자인[산업플러스-혁신 요람 ‘테크다윗’을 키우자]」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고충인인 분쟁 당사자 측이 기사 내 분쟁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해 관련 부서에 전달 후 조치토록 함.

- 2021.4.21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캐피탈프롬이클립스, 스테이지포와 페이크노모어 지분인수」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회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 하다며 기사에 대해 문의해와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
- 2007.1.31 본사 홈페이지(헤럴드팝)에 게재된 「한국벤처, 벤처인의 몰락史」 제목 기사와 관련해 고충인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기사 삭제 또는 비실명과 사진 삭제를 요청했음. 요청내용을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
- 2018.11.2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“한국 전통 종가 내림음식 체험 원더풀”」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진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충인인 주한헝가리대사관 측에서 내용 수정을 요청해와 해당 기자에게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함.